

2 0 2 4 지 구 촌 교 회

가 정 예 배 순 서 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전람!

Sharing Jesus!

VOL.22

2024 1-2



이웃을 돕는 모세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복음성가

지 190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6-25

- 16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 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떼에게 먹이니라
- 18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 19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 20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 21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 22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숨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 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 24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 25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1. 어느 날 모세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가혹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애굽 사람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애굽의 바로 왕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땅으로 달아난 모세는 어느 날 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 일곱 명의 자매가 양을 몰고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목자들은 먼저 온 일곱 명의 자매들을 위협하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약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먼저 온 자매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 모세의 도움을 받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고마워했으며 자신들의 아버지께도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르우엘은 딸들을 도와준 모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르우엘 가문을 도우며 정착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르우엘의 딸 중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 하고 연약한 이웃을 도와주길 기뻐하는 모세를 지켜보셨으며 애굽에서 고통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었는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복음성가

지 96장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12

- 0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 0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 0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 0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 0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 0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 0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 0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 0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한 후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양 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현상으로 모세의 시선을 붙잡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름에 응답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을 벗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장소에서 또는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포기(양도)할 때도 신을 벗었습니다. 곧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도 능력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풍성한 삶이 있는 자리로 옮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동행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를 통해(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스스로 있는 자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복음성가

지 30장
그는 여호와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3-22

-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 16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 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젃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 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 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 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 21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 22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서게 될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장 백성들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라고 답하십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의 힘 또는 무언가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지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완전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그들과 함께한 여호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붙잡고, 따라가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는 계획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가 듣고, 전달하면서 모세의 마음에 이 계획이 더욱 분명하게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을 통해,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올해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말하고 싶은가요?
예를 들어, 풍성하신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드는 하나님 등 다양한 면모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신 하나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복음성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1-9

- 01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 0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 0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 0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 05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 06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 같이 된지라
- 07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 08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 09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1.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겠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신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해야 할 말들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에도 모세는 주저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말하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2가지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며 그것을 바닥에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땅에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뱀을 보고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보통 뱀을 잡기 위해서는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용기를 내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 말입니다. 모세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할 때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적이 있다면 가족들과 서로 나누어 봅시다.

네 믿음이 크도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복음성가

지 94장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21-26

-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라



1. 예수님은 현재 레바논 지역 지중해 해안의 항구도시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 여인이 크게 소란을 피우며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귀신들린 상태에서 구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녀와 상관없다며 간곡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평소 인자와 자비가 가득한 예수님과와는 다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함이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기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2.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비록 자녀의 자격으로 은혜를 얻을 수 없다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줄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칠 곳이 없었고 개처럼 취급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큰 믿음은 기적을 성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만약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족들과 역할을 바꿔가며 상황극을 만들어보세요.

넉넉히 채우시는 예수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성가

지 298장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32-39

-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 33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 38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 39 예수께서 무리를 흠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1.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산에서 사역하신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 갈급함으로 예수님과 사흘이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급히 모였을 것이며 대부분은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사흘이나 시간을 함께 있었기에 그나마 가져온 음식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함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빵 일곱 조각과 물고기 두어 마리로 성인 남자 4,000명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약 1만명 이상으로 추정). 갈급함으로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 사람들의 필요를 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결심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계산하며 불가능함을 전제로 답변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보란 듯이 가진 떡과 생선으로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을 넣는 것이 아닌 제한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표적을 잘못 구하는 사람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복음성가

지 271장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1-12

- 0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 0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 0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니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 0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 0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 0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 07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 08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 0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 놀라운 칠병이어의 기적(마 15:36)을 경험하고 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기적을 진심으로 바라는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이라며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셨고,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 어떤 커다란 표적이 있었다 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표적이 주님의 십자가보다 클 수 없고, 주님의 부활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다시 말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 누룩에 대하여 종교적인 외식(형식적인 신앙)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잊어버리고, 갖고 오지 못한 떡(빵)에 관심이 더 있었기에 그 누룩을 떡(빵)과 연관짓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다면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즘 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바른 신앙고백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성가

지 74장
내 구주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13-20

-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
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
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 숭배가 과거부터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2.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였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위대한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그들이 믿고 있던 헛된 이방신, 죽어있는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른 신앙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늘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개하여 봅시다.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most of the page width.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여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
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석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을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하는 **자녀이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이름**가 어디로
가든지 **자녀이름**의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름**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1:9)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이름**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
니다. **자녀이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이름**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좋으신 하나님!
제가 너무 귀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낫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